



창립 48주년 국민 건강지킴이로 우뚝 서다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애써 온 한국건강관리협회가 지난 11월 7일 48번째 생일을 맞이했다. 이 뜻 깊은 날을 축하하기 위해 이순형 고문을 비롯한 건협 동우회원, 건협 어머니 사랑 봉사단, 유관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의 내외 귀빈이 참석했으며, 이 날 행사는 1부 '창립기념식', 2부 '제3회 메디체크 기생충질환 관리 심포지엄 2012'으로 진행되었다. 기념식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법무부 장관 감사장, 유관기관 감사패 등 유공자들에 대한 상상이 있었으며, '세계로 향하는 한국건강관리협회 기생충질환관리사업'이라는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는 건협이 캄보디아, 수단 등의 개발도상국에서 전개하고 있는 NGO 사업의 결과와 더불어 국가 기생충관리사업 현황과 기생충 유전자 검사의 최신 지견에 대한 연제 발표 등이 이루어졌다.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건협의 지난 48년

1960년대 당시 '기생충왕국'이라는 오명을 들을 만큼 우리 국민들이 널리 감염되어 있는 기생충 질환의 예방 및 퇴치를 위해 1964년 한국건강관리협회의 전신인 한국기생충박멸협회가 설립되었다. 정부와 협회는 학생·주민·사업장·군인 기생충관리사업, 전국 장내 기생충 감염률 실태조사사업, 대국민 보건계몽사업 등을 적극 실시했으며, 그 결과 1980년대 이르러서는 기생충 감염률이 현저히 감소하게 되었다. 하지만 경제성장·서구화된 식생활 등의 변화와 함께 고혈압·당뇨·고지혈증 등 생활습관병의 발병률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기생충박멸협회는 보다 다양한 보건예방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명칭을 한국건강관리협회로 개칭하고, 질병을 조기진단하고 건강위험인자를 찾아내는 건강검진에 주력해 왔으며, 특히 최근에는 이를 바탕으로 건강수명을 연장시키고자 질병예방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이렇듯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시간이 흐르고 사회가 변화됨에 따라 그 시대가 요구하는 건강지킴이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오고 있다.

모범이 되고자 직원 스스로 건강관리 솔선수범

한국건강관리협회의 2012년은 그 어느 해보다도 건강증진으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한 한해라 할 수 있다.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위험인자를 찾아내고 건강생활을 유도하여 건강을 관리하는 질병예방사업을 강화하였으며, 건강강좌 및 캠페인, 걷기대회 및 음악회, 공모전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국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였다. 또한 직원들 스스로가 건강을 과학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메디체크 건강관리카드를 이용한 '건강수치 기억하기운동'을 전개하였으며, 허리둘레를 직접 측정하면서 만병의 원인인 '비만'을 관리하고 전 직원 금연을 달성하는 등 국민들에게 모범이 되고자 솔선수범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건협은 '국립암센터 2012 금연대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건협 조한익 회장은 "2013년에도 건강생활 실천을 통한 질병예방사업의 확대로 국민들 스스로가 본인의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고, 건강고위험군 질병으로의 진행을 막기 위해 다양한 건강증진 방안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의 일상 속에 함께하는 건강검진 전문기관, 보건교육기관, 사회공헌기관으로 더욱 크게 성장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